

독서치료, 또 하나의 기독교 치료방법인가?

- 독서치료를 통한 위기의 맞벌이 가족치료사례를 중심으로-

강은주 (충신대 유아교육과)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성경에서는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질서에서부터 시작된 것임을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창2:24)와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찌니라”(마19:6)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며, 가정의 기원이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선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딤후4:1-5).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성을 진단할 때 “양호”하다라는 일관된 답을 얻기란 쉽지 않다. 누구나, 어느 가정이나 할 것없이 집안에 어려움이 1-2가지 썩은 다 있는 것으로 답하게 된다. 현대의 산업화, 핵가족화 이후 가장 큰 치명타를 입은 기관이 있다면 이 또한 가정을 떠올릴 수 밖에 없다.

오늘날 가정의 회복과 건강한 정립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치유의 은사로 가정의 영성회복을 촉구하는 여러 가지 기독교 가정사역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기관이며 그에 따른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한 여성의 시집과 관련하여 시부모, 시형제, 동서지간, 그리고 원가족인 친정식구들과 관계된 복잡한 일들로 인해 많은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부부가 각기 자신의 원가정에서 온전히 독립하여 새 배우자와 한 몸을 이루어 새 가정을 세우는 일이 온전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정과 친지와 많은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성경에 기초한 가족관계 신학의 관점에서 제시하는 순기능의 가정의 모형을 제시하여 오늘날의 많은 문제와 위기들을 직면하고 있는 가정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가정의 본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을 독서치료적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관계신학적 관점에서 본 순기능 가정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맞벌이가족은 기혼 여성의 취업 증가로 인해 지속적인 경제적 지출에 대한 개인적 동기와 욕구가 강해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구조적 변화로는 여성취업을 제한하였던 가족 크기 및 양육기간의 축소, 가사노동시간의 단축 등 과거의 부정적 요인들의 감소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맞벌이가족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경제활동인구연보, 2000).

그러나 경제적 안정 외에 맞벌이 가족이 직면하는 문제들은 자녀 양육 및 교육 문제 등 들 수 있다. 특히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취업여성의 경우에 일차적 책임을 여성에게 기대

하고 있기 때문에 기혼여성들의 취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초기단계이고 보육시설이 미비한 실정이며, 가사 노동의 분담과 가족의 역할 변화 문제 역시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맞벌이 가족에 대한 가정 및 사회적지원책으로서는 성역할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를 갖게 하는 것과, 직업환경 및 사회환경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함을 지적할 수 있다

2. 관계신학에서의 가족관계의 기본 요소

언약관계에 기초한 순기능 가족이— 기본요소로는 부부 및 부모자녀관계에서 언약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기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기, 섬김을 통해 힘을 부여하고 의사소통을 통한 친밀감 갖기 등의 기본요소를 서로 채우는 관계로서 설명되어진다. 이러한 가족관계는 심리-사회적 관점에서 본 순기능 가정의 특징과 상당히 유사하여 가족간의 균형 잡힌 응집성과 적응성 및 긍정적인 의사소통의 관계를 가진 건강한 가족관계의 특성을 내포한다

3. 현대의 위기가정의 유형

현대의 위기가정의 유형에는 이혼가정과 이혼을 통해서 수반되는 한 부모 가정, 재혼가정과 계부모가정, 그리고 법적 자녀 입양을 통한 입양가족과, 그 위험이 외연적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으나 잠재적 위기를 지닌 맞벌이 가족을 들수 있다.

III. 위기가정을 위한 기독교적 치료적 대안으로서의 독서치료를 통한 가정회복의 사례

1. 독서치료를 통한 위기가정 극복의 예

중년층의 전문직업을 가진 맞벌이 가족을 대상으로 독서치료를 통해 기독교가정의 회복의 예를 소개하고 있다. 대상가족은 두 자녀를 두었고 경제적 안정권의 전문직업에 전무하느라 가정부가 자녀들을 돌보았었으나 남편의 투자부실로 갑작스런 경제적 손실에 따라 두자녀의 양육문제를 부부가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주거환경도 훨씬 열악한 환경으로 이사한 뒤 양육과 직업적 무게, 가사부담 등 부모의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집에 있던 유아들이 어린이집 종일반에서 지내다 집에 오니 피곤과 짜증이 겹쳐서 부부-부모 자녀간에 많은 긴장과 예민한 반응이 자주 표현되게 되었고, 늘 엄마와 깊은 애착을 보이는 맏이와 아빠와의 애착이 강한 막내사이에 부모의 관심과 애정에 대한 다소 발달적으로 흔하게 나타나는 형제간의 질투심이 표현되었다.

2. 대상 가족의 주요 문제 진술

부부관계의 문제는 완벽주의, 예민하고 세심한 타인에 대한 배려와 헌신이 남다른 남편과, 성취지향의 아내 사이의 심리-정서적 긴장감과 불신이 있었고, 13년간 계속되는 남편의 학위취득 지연과 오랜 생활 아내의 경제생활에 의존된 가정경제관계에서 남편은 낮은 자존감과 심리-정서적 위축을 보이고, 아내 역시 심리-정서적으로 많이 지쳐있었고 남편에 대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었다.

특히 맏이의 경우, 엄마에 대해 요구사항이 많고 매사에 까탈이 심하며, 엄마 핑계를 대며 보채고 부모의 애정과 관심을 구하는 부정적 행동을 빈도 높게 보이는 편이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최근 2년간 갑작스레 변한 가정환경과 부모님의 잦은 언쟁과 부모님의 출장 등으로 몹시 불안해하며 작은 집으로 이사한 후 ‘크고 아름다운 집에 가서 예쁘게 장식하고 살자’라는 말을 여러 번 하기도 하였고,

작년 겨울 아버지가 업무관계로 야근이 많아 귀가하지 않은데다가 엄마의 오랜 해외연수로 시골 조부 모님 댁에 가있던 사건으로 부모가 이혼 후 아버지와 자신과 여동생이 같이 살고, 엄마는 다른 남자 형제네 가족과 재혼한 그림을 통해 가족이 결별한 것이라는 심각한 불안증세를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였다.

형제 관계에서 비사회적 행동을 더 자주 보이는 만이의 경우, 어린이집과 교회에서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 상당히 개방적인 편이며 또래에 비해 리더십 있게 행동하고, 인지-언어, 미술, 발레, 음악활동 등 예술적 측면에서 우수한 편이며, 또래관계도 좋으나 소꿉놀이에서 엄마역할을 고집하는 일로 그것에 반항하는 유아와 마찰이 있어 자주 실랑이를 하는 편이었다. 언어-인지적 발달이 빠른편이라 동화책을 읽을 줄 알며 쓰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 주변사물에 대한 명사를 혼자서 쓰고, 문자-소리관계를 이해하고 조음과 문장, 논리가 분명하여 원칙과 약속에 집착을 보이는 성격이다. 신체적으로 같은 연령대보다 18개월 정도 앞선 발육상태를 보여 키가 크고, 통통한 편이며, 동생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얻지 못한다는 생각에 외모에 대한 열등의식을 보이며 예쁘게 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이다.

3. 심리검사를 통한 문제의 진단

시간적 제한 때문에 가족 중 어머니에게 실시한 심리검사는 사랑의 5가지 언어유형 검사, 문장완성검사, HTP/KFD, 결혼만족도 검사, 대인관계검사 등의 비투사적 검사와 투사적 검사, 질적, 양적 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언어적 제한 때문에 만이에게만 실시한 심리검사에는 사랑의 언어유형 검사, 면담, 그림을 통한 HTP/KFD, 집단그림검사, 동물그림 검사 등 비투사적, 투사적 심리검사 등이다.

4. 독서치료를 위한 목표 및 자료선정

부부간 관계회복을 위한 독서치료 목표에는 의사소통과 문제해결을 위한 언어적 대화기술 증진시키기, 남편에 대한 피해의식 감소시키기의 목표를 성취하기, 와해된 남편과 아내의 상호 신뢰감 높이기 위해 <5가지 사랑의 언어>¹⁾,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²⁾, <상처와 용서>³⁾, <위장된 분노의 치유> 등을 중심으로 독서치료를 실시하였다.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 증진의 목표를 위해서는 감정입을 통한 아이 마음 읽어주기, 부모가 자신을 언제나 사랑함을 느끼고 알도록 도와주기, 형제가 서로 필요하고 사랑하는 존재임을 알려주기 등의 목표⁴⁾를 성취하기위한 자료로는 <아빠 돼지의 멋진 방귀>⁵⁾, <곰사냥을 떠나자>⁶⁾ 등을 이용하여 부모가 언제나 자녀를 사랑한다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어주고 그에 따른 독서치료적 질문과 활동을 겸하여 실시한 결과 긍정적 결과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언약적 관계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건강하고 정상적인 순기능 가정은 하나님과 가족간의 양방적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섬기어 친밀하고 적응력이 뛰어난 가족으로 성장시키는 것임을 이론적 고찰에 따라 새로운 기독교 치료법으로서의 성공적인 독서치료의 가능성을 소개하였다.

1) 케리 채프먼. 5가지 사랑의 언어. 장동숙 역. 생명의 말씀사. 2001.

2) 존 그레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김경숙 역. 친구미디어. 2000

3) 송봉모. 상처와 용서. 마오로팜. 2001.

4) 낸시 테퍼리. 내 귀염둥이 너를 사랑한다. 창작집단 바리 역. 중앙출판사. 2002.

5) 가도노 에이코, 사사키 요코. 아빠 돼지의 멋진 방귀. 편집부. 지경사. 2000.

6) 마이클 로젠, 헬렌 옥슨버리. 곰사냥을 떠나자. 공경희. 시공주니어. 2001.